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주 예수 이름 높이어(찬/새36장)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권순열 장로 2부/김건수 장로 3부/김교식 장로 4부/강수연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시편 23편(작곡 최덕신)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마태복음 6:9-10.....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5:1-20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게임 체인저(21) 잘못 구해도 기도는 잘못 아니다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13) 어바인의 광인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내 주여 뜻대로(찬431/새549장),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헌금 특송 Offering Song Jung Won Choi 최정원

1, 2, 3부/주기도문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Go Deeper Go Higher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차든지 뜨겁든지 Either Cold or Hot



조태현 목사 / Rev. Taeheon Jo

미국에 발을 딛고 처음 맞이하는 여름입니다. 온 성도님들과 함께 제1회 한여름의 뜨거운 기도 바람으로 뜨겁게 기도했고, 제6회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 강좌로 시원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뜨거운 영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차가운 지성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공동체, 더 나아가 소외된 이들을 향한 사랑에 분별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지요. 온 교회가 함께 뜨겁게 타오르자고 구호를 외칠 때는 나도 질세라 열심을 내야 하는 시기이고, 이 시대를 향한 차갑고 냉철한 분별력이 요구될 때는 날이 서도록 지식의 칼날을 갈아야 하는 때입니다. 어중간하게 있으면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면 미지근함의 적당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 바로 “때”에 대한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요한계시록 3장 14-16절) 소아시아 7 교회 중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지역은, 물이 좋지 않아 멀리서 물을 가져와 사용했다고 합니다.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뜨거운 온천수는 의료와 공업용으로, 골로새에서의 차가운 물은 식수로 썼죠. 그런데 뜨거운 온천수가 식으면 석회가 생겨 사용할 수가 없고, 차가운 물이 식으면 맛이 써져서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칫 배관을 통해 흘러오던 물이 식으면 아무 생각 없이 마시다가 토해 버리는 일이 빈번했다고 하니, 계시록에 선포된 말씀이 당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귀에는 쏙쏙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쟁에 이은 경제 여파, 돌연 다시 확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축, 포스트 모더니즘이 낳은 수많은 이론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때를 보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늘 “아멘”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뜨겁게 “충성”되시며, 진리에 대해서는 서술 퍼렇게 “증인”이셨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늘 아멘으로 화답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충성되게 섬기며, 내게 주신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에도 증인 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고 합니다. 영적 공동체에 부여하시는 성령의 흐름을 따라 뜨겁고, 차가워져야 하는데 적당히 한다면 미지근해져 있으면 토해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본격적인 여름, 성령께서 베델교회를 통해 주시는 인도하심에 발맞춰 뜨거운 때 뜨겁고! 차가운 때 차가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This will be my first summer upon setting foot here in America. And we, together as Believers, had a time for fiery prayer in the first annual event called “Midsummer’s Blazing Winds of Prayer.” Afterwards, the 6th annual “Midsummer’s Cool Breeze Theological Conference,” blew in a new, cool and refreshing understanding. With fiery spirits, we experienced the Love of God. And with a crisp cold intellect and cool-headed insight, we learned to love our neighbors and our community, and especially those whom society has neglected. The whole church shouted out, “Let’s all get fired up!” And with zeal in that moment, I knew it was time to get to work. I realized that the time has come to sharpen our minds in accordance to the demands of this day and age; with an icy, but sober discernment. If you stay half hearted and indecisive, being neither hot nor cold, it is to be lukewarm. This is not acceptable. There is no middle ground in this matter. This is the time to declare the truth of what I believe in and proclaim the way in which I will live.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Laodicea write: These are the words of the Amen, the faithful and true witness, the ruler of God’s creation. I know your deeds, that you are neither cold nor hot. I wish you were either one or the other! So, because you are lukewarm—neither hot nor cold—I am about to spit you out of my mouth.” -Revelation 3:14-16 NIV. Among the seven churches of Asia Minor, the Church of Laodicea was located in a place where you had to import water. The hot water from the springs of Hierapolis was brought in for medicinal and industrial purposes. The cold waters from Colossae were used for drinking. However, when the water from the hot springs cools down, limestone would appear and the water could no longer be used. And when the cold water loses its chill, it becomes bitter making it undrinkable. Frequently, many would drink lukewarm water from unknown sources and vomit it up. Thus, the Laodiceans were quite familiar to this message from the Book of Revelation.

The seemingly unending economic aftermath from a never-ending war, the worsening decay from the recurring coronavirus outbreak, and the many confusing theories that spawn from postmodern thinking, all make us wonder, “How are we supposed to live in such a time as this?” Our Lord always responded with, “Amen,” to God the Father. He was completely devoted and “loyal” to the work of the Kingdom of God. And when it comes to declaring the truth, our Lord was the boldest “Witness” for the cause. As we respond with amens to the preaching from the pulpit, and as we loyally serve the church community, shouldn’t we, also, live with the complete assurance of our salvation and be a faithful witness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s? The Lord God, The First Cause and Creator of all Creation, knows everything we do. As members in our spiritual community, we ought to be extreme, being either hot or cold in every effort as the Holy Spirit leads. But if we are only doing just enough to get by, then we are considered lukewarm and will be vomited out. It is now the primetime of this summer! Bethel Church!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Holy Spirit. Let us be hot when called to be hot. Let us be cold when called to be cold. Let us be as fierce as He has called us to be.



주일설교시리즈
산상 설교 강해- 제21편
게임 체인저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잘못 구해도 기도는 잘못 아니다
(마 6:9-10)

설교자: 김한요 목사

1. "신앙 훈련은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적용하기



2.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_____ (참고/Larry King, Powerful Prayers)

2) _____ (참고/약 4:2-3)

3) _____ (참고/마 7:9-11)

3. 야곱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참고 구절을 읽고 답해 보십시오. (참고/창 32:24-26, 눅 22:42)

4. 아래 구절을 같이 읽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대로 기도해 보십시오.

빌 1:9-11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골 1:9-12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 적용찬양: 내 주여 뜻대로(찬431/새549장),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베델 제자 훈련

끝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BAM〉

지난 2년여간 코비드 상황 가운데 느슨해진 나의 신앙과 마음을 새로이 다잡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던 중에 후보 광고를 보다

가 '아하, 바로 이거야!' 한 것이 바로 BAM훈련입니다. BAM훈련의 3개월간의 수업과 토론은 오래전 미국에 와서 학교를 마치고 직장 생활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지내온 저에게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미래에 대한 계획과 그림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사업과 신앙을 어떻게 결합해서 앞으로 미래를 그려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일상이 제자의 삶이 되고 하루하루가 사역이 되며 나의 비즈니스가 참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닐 수는 없을까, 나를 통한 복음이 정말 온전한 복음, 주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복음, 변화를 가져오는 복음이 되기 위해 앞으로 나의 삶과 비즈니스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스스로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 나가야 하는 향후 몇 년간 고민의 충분한 출발점을 제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만 믿으면 됩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그냥 온전한 믿음이 더욱 큰 은혜 아닐까요? 그래서 내 주변의 환경과 사람을 계속 돌아보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성취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변화와 가치의 문제가 아닐까, 어떻게 우리 삶을 사느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BAM 클래스는 내 삶은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만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계속 고민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게 하는 좋은 마중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식 장로



〈영어 제자반〉

영어 제자반은 정말 놀랍게도 평생의 영적 몽유병에서 깨어나 더 맑고 더 밝으며 더 소망찬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의 한인 이민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가 논쟁으로 분열되면서 저는 비록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믿음은 자라지 않고 축복을 선행으로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고 저는 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안락한 가정을 이루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제 삶의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 "왜요?"라고 묻다가 남편이 전에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베델은 진실을 말하는 교회이다." 저는 코로나 기간에 애리조나에서 이곳으로 이사와 베델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기 시작하셨고, 저로 하여금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오랜 "광야의 방황" 끝에 저는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알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제자반의 과제들로 힘에 벅찼으나,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항상 신실하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의 공허한 영

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의 능력과 은혜를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의 소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과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선화(Elizabeth Cha) 권사



〈양육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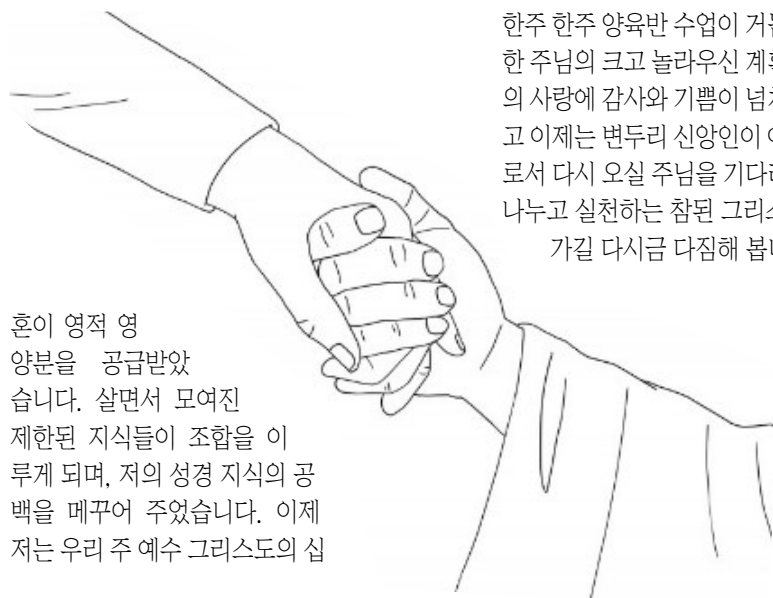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나를 자부하며 살아왔던 제게 일대일 양육반 과정은 첫 번째

수업부터 저의 교만과 자만을 한방에 무너트리며 저 자신이 너무도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음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과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양육반 과정을 통하여 단순히 차가운 머리가 아닌 진정 따뜻한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주 한주 양육반 수업이 거듭될수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과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남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는 변두리 신앙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다시금 다짐해 봅니다.

조광중 집사

혼이 영적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살면서 모여진 제한된 지식들이 조합을 이루게 되며, 저의 성경 지식의 공백을 메꾸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



말씀 AGAIN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 인용되는 책 제목 혹은 찬양 위인들의 인용구, 찬양을 정리하여 이전에 들었던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Again" 나눕니다.

장영희의 '내 생애 단 한 번' (2021년 10월 20일 설교 '변두리에서 여백으로')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간암으로 돌아가신 서강대 장영희 교수님이 이런 말을 썼어요.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짐과 다시 일어섬'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좇으며 살고자 무진 애를 쓰지만, 이따금 나의 죄 된 자아로 무너진 모습을 마주하며 실망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이미 은혜로 선물 받은 '천국 시민' 된 자의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넘어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누리는 특권이며 변화하는 삶입니다. 힘내십시오!

Newsweek(July 20, 1988) Cover Story 'Science Finds God' (과학이 하나님을 발견하다) (2020년 10월 11일 설교 '앞이 캄캄할 때')

한때 창조주에 대한 여지를 전혀 남겨 놓지 않았던 빅뱅 이론이 지금은 이 거대한 우주 세계의 배후에 디자인과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1979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텍사스

주님이 나에게 말 거실 때..

대학의 스티븐 와인버그는 "우주를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 초점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죽였던' 바로 그 과학이 믿는 자들의 눈앞에서 믿음을 회복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생명과 의식 있는 자를 위해 기화 제작된 흔적을 보면서 곤란에 빠지곤 했습니다. 만약 변하지 않는 자연계의 수치들, 예를 들면 중력의 힘이라든지, 전자의 전하량이라든지, 양자의 질량과 같은 것들이 조금이라도 변한다면 그때는 원자들이 서로 붙어 있을 수 없고, 별들은 더 이상 반짝거릴 수 없으며 결국 생명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64년 레이저의 원리를 발견하여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찰스 타운즈 역시 "많은 사람이 이제는 수공하기를 우주의 자연법칙은 어떤 지능자의 개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 라는 말씀 한마디에 빛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며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2천 년 후의 과학자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평 아침고요 수목원 한상경 대표 (2020년 4월 12일 설교 '하소연인가, 담대함인가?')



"저는 곡선이 있는 휘어진 나무를 좋아합니다. 살아온 세월의 모진 풍파를 겪은 흔적으로 휘어진 가지. 그런데 여기에 꽃이 핍니다. 휘어진 가지에 열매가 더 잘 열려요. 아팠던 나무가 휘어

지는데 휘어진 건 펴지지 않아요. 그러나 꽃은 피울 수 있어요."

혹시 긴 터널 속에 갇혀있는 듯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그저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짓눌려 계신가요? 휘어진 가지에서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세요. 예수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모진 풍파로 꺾이고 휘어진 가지가 십자가라면 그 휘어진 가지에서 피는 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그리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갤브레이스의 '불확실성의 시대' (2020년 11월 15일 설교 '아브라함: 고향을 떠난 사람')

경제학자 갤브레이스의 '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Uncertainty)'는 오일쇼크를 배경으로 한 내용으로 출간당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던 책입니다.



현 미래학자의 눈으로 본 그 당시는 오히려 확실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코로나 시대는 어떤가요? 마치 야구의 9회 말 이후, 오리무중 상황처럼 지금은 초(超) 불확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할까요? 불확실은 공포심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당대 최고로 부흥했던 자신의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을 받고 떠났습니다. 도대체 그 부르심이 뭐였기에, 어떻게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히1:18)'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화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히11:10)' '부르심(Calling)에 순종한 믿음' '나그네처럼 사는 믿음' 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믿음의 비밀을 아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한여름의 뜨거운 기도바람

주 발 앞에 엮드린 여인들



하나님은 미디안을 향한 싸움에서 수적으로 열세한 숫자인, 단 300명의 용사를 뽑으라고 명하셨습니다. 300명을 뽑으라고 하셨을 때 이미 승리를 계획하셨고 확정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300 용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는 현장에서의 하나님 임재와 일하심을 목격하는 은혜의 부름이었습니다. 더불어 약속된 은혜와 응답은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게으르고, 일상에 지치고, 예기치 못한 일로 낙심되는 문제들이 쌓여갈 수 있는 한 해의 중간 지점, 여름 신학 강좌를 앞두고 교회에 함께 모여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일상의 게으름과 루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또다시 마음을 다지고 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 년에 한 번 다짐했던 엘리야 새벽 기도와는 또 다르게 여름 새벽을 달려가는 기분과 기대는 사뭇 달랐습니다. 의무가 아닌 기쁨의 순종으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마음에 묻어둔 기도 제목을 하나둘 내어놓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의 기도의 방향을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잡아주셨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주시며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이 예배 후에도 남

아 오래도록 개인 기도를 하시고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하실 계획안에 있는 온 땅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일어서려다 또다시 머리를 숙여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의 장을 열어주신 주님의 몸되신 베델교회, 함께 기도할 수 있게 은혜의 사슬로 매어주신 베델의 기도 동역자들이 되어서서 감사합니다. 남은 한 해도 기도의 은혜 안에 끼이지 않는 불꽃같은 성도로 살길 기도합니다.

박성혜 집사



올해 초, 1월 엘새 새벽기도회의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갈 무렵 다시 특별 새벽 기도회 한여름의 뜨거운 기도 바람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 것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300명 용사 기도회에 동참하여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부족한 저에게 첫날과 둘째 날 안내 사역을 맡겨주셔서 성도님들 한분 한분을 맞이할 때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발걸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랏빛 새벽을 가르고 한 분 한 분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뜨거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제 마음마저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1주일 동안 목사님의 보약 같은 말씀과 매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시 무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께 올려 드립니다.

신상희 집사



지난 6월 양육반을 마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한 날들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고스란히 유지하다 곧바로 이어진 뜨거운 기도 바람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제 마음도 이끌려 싸인 업을 했습니다.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매일 05:30에 시작된 새벽기도와 금, 토요일 이틀간의 신학 강좌로 마무리된 5일은 제겐 마치 꿈을 꾸듯 행복했고,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날들로 꽉 채워졌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곧바로 출근 준비를 하고 직장이 아닌 교회 마당에 내딛는 첫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김한요 목사님의 감동 설교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다 함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뜨거운 기도를 올려드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준비해 주신 빵을 들고 출근하는 아침이 너무 즐거웠고, 그러기에 병원 중환자실에서 고된 12시간 근무도 거뜬히 견딜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얻었고 매일 이렇게 살고 싶다는 소망도 가졌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베델교회를 더욱 사랑할 것이며 담임 목사님을 위한 자유자의 의지로 굳건한 믿음 위에 어둠의 끝에 빛을 분명히 주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과 2인 3각이되어 가정과 병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것이며, 또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빛내기 위한 모든 사역에 충성되게 올인하고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베델교회가 되도록 제 무릎 꿇어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주경아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사랑/목회지원/선교/QTM: 정승락 목사
 소망/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믿음/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화평/베델위십/셀: 박경철 목사
 은혜/교육부/전도폭발: 박성권 목사
 충성/이웃사랑/시니어: 조태현 목사
 새가족/경조/기도/예향: 한순교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삼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다음세대 S.P.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송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제9회 베델 차세대 리더 및 유명 장학금

하나님께서 2022년에도 은혜를 주셔서 다음세대를 위한 장학기금을 통해 꿈과 희망의 젊은이들을 격려하도록 허락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 성도님의 헌신으로 유명 장학금을 마련해 선교사 자녀 3명에게 1만불을 지급하게 되었고, 많은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베델 장학금으로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 총 41명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베델 장학생으로는 24명의 베델 자녀들을 선발하였고, 17명의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선발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베델의 사랑과 자부심을 나누어 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장학생 선발 과정을 지켜본 성도 가운데, 이 일이 매우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업임을 깨닫고 2023년에 장학금을 기탁하시기로 해주셨습니다. 선발 과정에서 학생들의 간증과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장학 소위원들께서 가슴 뛰는 은혜가 있었으며,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했다는 고백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베델 장학생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이 되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흔드는 증인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베델장학금(41명): 고유경 김나경 김민규 김병규 김소희 김예인
 김주은 김진 박선재 박수연 박예은 배세은 배세희 서정민
 석기은 손하늘 신규민 신혜빈 유영권 유영일 이승안 이예원
 이예은 이원빈 이주안 이주은 이지연 이지원 장효선 전형우
 조다은 조수민 조정민 조하은 주안 주찬호 최민재 최예미
 최제영 최해빈 Serena Phelps

유명장학금(3명): 김예진 문아영 윤주영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8월) | 8/14: ①부-김귀성 ②부-김근수 ③부-김도석 ④부-박제인
 8/21: ①부-김동건 ②부-김동수 ③부-김병인 ④부-박찬미
 8/28: ①부-김명수 ②부-김백열 ③부-김병수 ④부-오새아

헬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8,9월) | 8/13: 백권기 8/20: 변영택 8/27: 성주영 9/3: 선우영

강단꽃(8월) | 8/7: 최호경 8/14: 김창남, 안예진, 최하자 8/21: 양준서, 윤주원, 최하자 8/28: 조현지, 정선경, 현승원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장미순(한의학), 간호사-홍정미

다음주 | 의사-오미숙(한의학), 간호사-오선희

선교후원

[팍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박기쁨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영), 희바(배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M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슬기로운 예배 방역 지침** 이미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확산이 됨에 따라 COVID 증상을 스스로 관찰하시고,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와 격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와 모임 중에 가능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베델 차세대 리더 장학 및 유영 장학금 수여식** 오늘 3부 예배에 유영 및 베델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베델의 후원이 다음세대에게 큰 격려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 **8월 수요일예배 안내** 8월 10일(수)부터 복음서의 4가지 비유를 선택하여 '천국의 비밀을 향해 던지는 조약돌 네개'라는 주제로 김한요 담임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의 단해였던 마음이 열리는 귀한 복음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오늘(7일) 본당 입구에서 수요일예배 말씀 책자를 나누어 드리며 신청 등록을 받으신 책자를 가져가셔서 미리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 **베델 제자훈련 등록** 가을학기 양육반(한/Eng), 베델제자반(한/Eng) 등 여러 훈련 과정을 오늘 주일(7일)부터 21일(주일)까지 본당 앞 부스나 온라인(bkc.org)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개강은 8월 말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양육반- 8월 27일(토) 오전 7시 30분, 유년부실(구식당)

제자반- 8월 27일(토) 오전 8시 30분, 유년부실(구식당)

문의: 진정훈 집사 (714)318-2183

◆ **57차 전도폭발 모집** "기도가 깊어지면 전도가 높아진다." 복음 증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생사의 순간에도 해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폭발에서는 복음의 내용을 배우고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을 훈련하게 됩니다.

훈련 일정: 8월 30일-12월 13일(총 15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훈련 방법/장소: 대면, 비전채플

등록 방법: 교회 앞 부스 or 교회 홈페이지(bkc.org)

문의: 김종곤 집사 (714)450-0015

◆ **한국학교 가을학기 개강안내** 2022년 가을학기 한국학교가 개강됩니다. 큐티, 한국어 수업, 다양한 한국 문화 활동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한국의 자부심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도해주세요.

기간: 8월 20일(토)-12월 17일(토)

시간: (대면)매주 토요일 오전 9시-12시 30분, (비대면)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3시 30분

대상: 5세 이상부터 중고등 학생(2022년 9월 1일 기준, 킨더 이상)

등록비: \$290(대면, 6월 13일 이후 \$310), \$200(비대면, 6월 13일 이후 \$220)

문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최문정 집사 (949)836-7687

◆ **유아세례 모집** 8월 중, 2,3부 예배에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자녀의 유아세례를 받기 원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들은 세례교육과 문답을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자격: 24개월 이하 자녀,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세례/입교 교인

신청: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문의: 최규덕 장로 (949)838-4445, 조태현 목사 (949)431-8440

◆ **BYM Jr, 졸업을 축하합니다** 지난 2년간 중등부에서 열심히 섬기고 성장한 8학년들의 아웃팅을 위한 사인업(Google Form)을 8월 14일(주일)까지 받습니다.

일시/장소: 8월 27일(토), Knotts Berry Farm

문의: Daniel Hyeon 전도사 (949)677-4911

◆ **교회학교 큐티인 섬머챌린지** 교회학교에서 7월-8월 두달간 큐티인 섬머챌린지를 진행합니다. 두달간 매일 큐티를 한 친구들은 시상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집중적으로 큐티인을 통해 깊이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베델의 모든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실내카페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8월호 교회학교 큐티인 판매** 영문 8월호 큐티인이 실내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주중에 오실 경우는 사무실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교회학교 교사 및 TA 모집** 영아부(3부 교사와 TA), K-1(3부 TA), 초등부(2,3부 교사와 TA)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심검 시간: (2부 예배) 9시-10시 30분 / (3부 예배) 10시 30분-12시 45분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C2C 청소년 합합댄스 워크샵** 다양한 워십 중의 하나인 합합으로 다음세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뜨거운 찬양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일시: 8월 19일과 8월 26일 오후 4시-7시

대상: 6-12학년 베델 교인 (2022-2023학년)

등록 방법/기간: 베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 7월 24일(주일)-8월 14일(주일)

문의: 안지호 집사 (949)241-1807

◆ **기도해 주세요**

베트남 선교가 8월 11일(목)부터 18일(목)까지 진행됩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구속경 권사님께서 7월 31일(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지연화 권사님(지중필 집사의 모친, 지지영 권사의 시모)께서

8월 1일(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새가족 및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현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보미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갈릴리 수양관 3164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Prayer is Not Wrong Even If the Request is Wrong (Matthew 6:9–10)

1. It is said “Training in faith is training in waiting for answers to prayers”. What is your prayer request for which you are waiting for an answer?

Apply to Life



2. What should our attitude be when our prayer requests are not answered?

1) _____ (Ref: Larry King, Powerful Prayers)

2) _____ (Ref: James 4:2-3)

3) _____ (Ref: Mat 7:9-11)

3. What is the commonality between Jacob's prayer and Jesus's prayer? Refer to the following verses.
(Ref: Gen 32:24-26, Luke 22:42)

4. Read the following verses and pray as Jesus taught us.

Phil 1:9-11 And this is my prayer: that your love may abound more and more in knowledge and depth of insight, so that you may be able to discern what is best and may be pure and blameless until the day of Christ, filled with the fruit of righteousness that comes through Jesus Christ – to the glory and praise of God.

Col 1:9-12 For this reason, since the day we heard about you, we have not topped praying for you and asking God to fill you with the knowledge of his will through all spiritual wisdom and understanding. And we pray this in order that you may live a life worthy of the Lord and may please him in every way: bearing fruit in every good work, growing in the knowledge of God, being strengthened with all power according to his glorious might so that you may have great endurance and patience, and joyfully giving thanks to the Father, who has qualified you to share in the inheritance of the saints in the kingdom of light.

■ **Song in Response:** My Jesus, as Thou Wilt (Hymn 549), My Desire and Prayer